

1 개요

멸치잡이 때 만선이 되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깨비 이야기이다.

제주말 ‘도채비’(도체비)는 표준어 ‘도깨비’에 해당하고, 제주말 ‘멜’은 표준어 ‘멸치’를 뜻한다.

2 내용

구좌읍 한동리 지경에 도깨비가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. 멸치잡이를 하기 전에 나 이든 공원이 제물을 준비하고 도깨비를 청해서 대접했다. 음식을 대접받은 도깨비는 보답으로 멸치어장에 풍년이 들도록 도와주었다. 다음 해에는 마을에서 도깨비 대접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고, 멸치어장도 흉년이 들었다.

3 특징

4 핵심어

멸치, 도깨비, 한동, 제물, 계장, 공원, 영감, 응감, 대축(옥수수), 범벅, 오메기떡, 멸치 어장

5 원전 서지사항

멜 잡는 도채비(평대리지편집위원회, 《평대리 : 비자림 군락의 촌》, 1999)

6 관련 자료

도깨비 이야기(김영돈 · 현용준 · 현길언, 《제주설화집성(1)》,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, 1985)

도깨비(제주도, 《제주도전설지》, 1985)

도깨비(I)(제주도, 《제주도전설지》, 1985)

도깨비(II)(제주도, 《제주도전설지》, 1985)

도채비(1)(현용준, 《제주도 전설》, 서문당, 1976)